

“마마~”... 고척돔 울린 보헤미안 랩소디

퀸, 현대카드 슈퍼콘서트로 49년 만에 첫 단독 내한공연 테일러·메이·램버트 조합으로 전율의 120분... 한국팬 떴창

“마마~ 저스트 킬드 어 맨~(Mama just killed aman)”

‘보헤미안 랩소디’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아담 램버트가 노래를 시작하자 고척 스키야드 돔을 가득 채운 2만여 명 관객들은 환희에 찬 함성을 내질렀다.

드러머 로저 테일러,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그리고 램버트가 1975년 퀸 정규 4집에 수록된 이 곡을 선보이는 동안 관객들은 큰 소리로 노랫말을 따라 불렀다.

영국의 전설적 밴드 퀸이 결성 49년 만에 18일 첫 단독 내한공연 무대에 올랐다.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5번째 주인공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2014년 슈퍼소닉 출연진으로 한국 팬을 만난 바 있다. 1970~1980년대 전성기를 누린 퀸이지만 당시 한국 젊은 관객들에게 다소 생소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사이 프레디 머큐리 삶을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신드롬이 우리나라를 휩쓸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이날 공연장을 발 디딜 틈 없이 채운 관객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팬이었다. 이들은 ‘퀸의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머무르지 않고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노래에 ‘떼창’으로 화답했다.

퀸은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내놓은 마지막 앨범의 동명 수록곡 ‘이누엔도(Innuendo) 인트



18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5’편에서 퀸이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현대카드 제공. 연합뉴스

로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나우 아이엠 히어’(Now I’m Here), ‘해머 투 폴’(Hammer To Fall), ‘킬러 퀸’(Killer Queen) 등 빠른 템포 곡으로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퀸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호응을 유도했고, 서툰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램버트가 머큐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였다. 지난 10년간 톱 투어에서 마이크를 잡아 온 램버트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음악 해석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켰다. 램버트는 ‘세븐 시즈 오브 라이프’(Seven Seas Of Rhye), ‘후원즈 투 리브 포에버’(Who Wants To Live Forever), ‘더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 Must Go On) 등에서 3옥타브를 넘나드는 빼어난 가창력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테일러와 메이의 관록도 돋보였다. 우리 나어로 칠순이 넘은 이들은 백발을 흘리며 세월이 풍화되지 않는 드림과 기타 실력을 보여줬다.

테일러는 자신이 작곡한 ‘아이엠 인 러브 위드 마이 카’(I’m In Love With My Car)를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소화했다. 모든 곡에서 드럼으로 힘을 불어넣은 그는 특히 ‘크레이지 리틀 씽’(Crazy Little Thing)에서 혼이 실린 연주로 자신의 존재를 관객에게 각인시켰다.

메이 역시 ‘아이 윈트 잇 올’(I Want It All) 등에서 보컬을 소화했고 콧가를 때리는 기타 독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연 하이라이트는 단연 ‘라디오 가 가’(Radio Ga Ga)와 ‘보헤미안 랩소디’ 무대였다. 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은 박자 한 번 틀리지 않고 ‘라디오 가 가’에 맞춰 손뼉을 쳤고 ‘보헤미안 랩소디’ 무대에선 어느 곡보다 힘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1991년 세상을 떠난 머큐리가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했다. 메이가 기타 독주와 함께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Love Of My Life)를 부를 때 스크린에 머큐리가 생전 해당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왔다. 마치 메이와 나란히 노래를 부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고, 머큐리가 뺨은 손에 메이가 받아치기도 했다.

이들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30곡을 쉴 새 없이 소화하며 ‘살아 있는 전설’임을 입증했다. 연합뉴스

BTS ‘블랙스완’ 93개국 아이튠즈 1위

4집 선공개곡... K팝 최다

방탄소년단 정규 4집 선공개곡 ‘블랙스완’이 93개국 아이튠즈 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블랙스완’이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세계 93개 국가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K팝 사상 최다 국가에서 1위다.

전작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67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한 바 있는 방탄소년단은 ‘블랙스완’으로 자체 기록 역시 경신했다. 이 노래는 다음 달 21일 발매되는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수록곡 중 하나로, 지난 17일 오후 6시 앨범 발매에 앞서 먼저 공개됐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CBS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에 출연해 ‘블랙스완’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희순, 영화 ‘하얼빈’서 안중근 맡는다

배우 박희순(50·사진)이 영화 ‘하얼빈’에서 안중근을 연기한다고 ‘안중근’ 제작사 즐거움상상과 박희순 소속사 스타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영화 ‘하얼빈’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러일전쟁, 을사늑약, 군대해산 등 일제의대한제국 침략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직전 일주일 동안의 긴박했던 이야기와 휘순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의 일을 그린다. ‘부활의 노래’(1991), ‘동승’(2003), ‘나탈리’(2010) 등을 연출한 주경중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박희순은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 하나가 모두 살아서 꿈틀대는 시나리오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며 “안



중근 의사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암울했던 시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나이로, 그 뜨거운 이야기가 가슴 저리게 와닿았다”고 전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김해숙이 연기한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인 올해 개봉을 목표로 촬영을 앞두고 있다.

제작사는 “안중근의 고향 황해도 해주 지역과 백두산 촬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초콜릿’ 종영... 윤계상표 멜로가 보여준 힘

마지막회 시청률 4.58%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윤계상의 멜로 연기가 돋보인 작품이었다.

19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방송한 JTBC 금토극 ‘초콜릿’ 마지막회 시청률은 4.579%(이하 비지상과 유료 가구)를 기록했다.

최종회에서는 현실의 벽을 넘어 그리스에서 재회한 이강(윤계상 분)과 문자영(하지원) 이야기가 담겼다. 호스피스 병동을 배경으로 애절한 로맨스와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초콜릿’은 그동안 주로 스크린, 그것도 장르극에서 활약한 윤계상과 그리고 하지원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다.

2004년 큰 인기였던 드라마 ‘미안



초콜릿. JTBC 제공

하다, 사랑한다’의 이형민 PD와 이경희 작가가 오랜만에 의기투합한 점도 화제가 됐다.

그러나 극 자체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대회 사고 등 특별한 이벤트에 기반 극 전개는 자연스러

움을 추구하는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아 억지스럽다는 비판이 일었다. 드라마의 전반적인 톤이 소소한 따뜻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울리지 못했다.

다만 윤계상의 멜로 연기만은 빛을 발했다. 윤계상은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이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물론 가슴 떨리는 멜로 연기로 다시 한번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콜릿’ 후속으로는 박서준 주연 ‘이태원 클라쓰’를 방송한다. 연합뉴스



여자친구, 다음달 3일 컴백... 빅히트 합류 후 첫 앨범 걸그룹 여자친구가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다. 소속사 쏘스뮤직이 여자친구가 다음 달 3일 미니앨범 ‘화: 레퍼런스’(화: LABYRINTH)를 발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쏘스뮤직 제공.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우리나눔 11:00 살림하는 남자들(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공부야 너야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삼맛 나는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20:00 메탈도사 2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9:30 원더볼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물방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10 로보카 폴리 16:10 최고다! 호기심탐지 17:20 그림을 그려요 19:00 스파이더맨 20:00 메탈도사 21:50 EBS 디류프라인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우영닷컴(재) 15:50 동물의견속(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2:05 제보자들(재) 13:10 테레킨토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거리의 만민(재)	12:00 12 MBC 뉴스 12:20 시정길 스페셜 13:20 헬로키키 동물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호기심대장 카토 15:50 뽀롱뽀롱 모두야 놀자 16:20 나쁜 사랑(재) 17:00 5 MBC 뉴스 17:25 테마여행 길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13:50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태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전문용임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영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20:40 우리말 겨루기 21: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KBS 특별기획 2020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아한 소녀 20:30 글로벌24 20:55 옥탑방의 문제아들 1부 21: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 22:10 개는 훌륭하다 1부 22:45 개는 훌륭하다 2부 23:40 e스포츠 특집 더 드러머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스테라이트 21: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부 22:3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2부 23:10 언니네 생방송 1부 23:50 언니네 생방송 2부	18:00 순진포착 세상엔 이런일이(재) 19:00 네모세모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남민덕터 김사부 2 22:20 남민덕터 김사부 2 23: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8:00 내 별명은 대통령 9:30 KCTV다큐스페셜 10:30 취미로 먹고 산다 12:00 KCTV 세네한수 12:40 KCTV 시청자세상 13:10 이슈토크 광 15:10 스포츠 당구 더 레슨 17:00 KCTV 뉴스 18:00 취미로 먹고 산다 19:00 KCTV 뉴스 7 20:00 KCTV다큐스페셜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20일
	36년 재우려는 욕망이 강하고 부족함을 한탄한다. 48년 자녀 또는 부하직원에 대한 회소식 있다. 60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구설이 따르고 동료의 미움을 사게되니 언행을 조심, 72년 부업 또는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일든 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84년 학문이나 국가자격증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37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어려운 일도 무난히 해결된다. 49년 업무나 맡은 임무를 대충하면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니 마무리를 잘하라. 61년 문서운이 길하나 재물에 지출 또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73년 직업인은 활동이 멈추다. 85년 이성교제시 언행이 따르니 조심하라.
	38년 무슨 일든 하면 건강에 도움되고 금전이익이 있다. 50년 세일즈맨은 사방팔방 분주하며 주위에서 인정한다. 62년 내 행동을 상대가 오히려 행동을 신중하게 할 것. 74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적극적 추진의욕이 필요. 86년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주변과 충돌하니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지혜 필요.
	39년 재물운이 있으며,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 이동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신뢰가 필요 하다. 63년 언쟁이나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마라. 75년 기술과 노후자가 결실을 얻을수 있는 기회. 인정을 받으며 재운이 있다. 87년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봉사할 일이 주어진다.
	40년 외출 또는 친목에 참여하게 된다. 52년 협력이 필요한 시기. 정보력을 동원할 것. 창업 또는 개업을 할 수도 있다. 64년 소신껏 일을 추진하면 의외의 결과가 있다. 76년 업무에 역량을 발휘하고 정승이 있으나 집안에서의 걱정과 불화는 별개. 88년 부모와 언쟁이 오갈 수 있으니 말을 자제하는게 좋다.
	41년 허세를 부리면 구설수에 오르니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을 자제. 53년 베푸는 만큼의 결과가 있다. 65년 벌과금 또는 생각지 않은 재물지출이 생기니 차량운전시 조심. 77년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에 의존해야 하니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라. 89년 이상에 상처를 받을수 있으니 논쟁하면 불리.
	42년 마음을 달래줄 벗 또는 손님이 찾아온다. 음주는 적당히. 54년 문서관련 일이 빠르게 추진된다. 차분한 검토와 병행 실천하라. 66년 변화 변동수가 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 78년 도전외식에 결과로 보답 받는 형국. 분주하고 활동하라. 90년 시가지나 시골에서, 생각이 흐트러지니 계획을 착실히 하라.
	43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55년 조대를 받거나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67년 자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비싼 하루 외출시 안전조심. 79년 직장이나 취업소식이 있으면 이성교제나 소개팅은 좋지 않다. 91년 직업은 활동이 활발할 일이 생긴다. 친구들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44년 감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하는 일에 전념할 것. 56년 나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대인관계 길다. 과음과 늦은 귀가는 삼가라. 68년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라. 마음이 편하다. 80년 이성교제나 친구 소개 미팅이 주선된다. 92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45년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자리를 이동하려 한다. 문서운 길. 57년 업무가 많아지나 기대치보다 매출이어나 결과가 부실하다. 69년 자금지출이나 거래가 있다. 거절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하라. 81년 언행에 신중하라.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구설수를 만든다. 93년 형제간에는 언쟁이 오갈 수 있으니 말을 자제.
	46년 자식이나 부하직원 때문에 예민해 질 수 있다. 스트레스 조심. 58년 목돈을 지출할 일이 생긴다. 품평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70년 재주를 인정받으니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라. 82년 전문업이나 자격소지자 인정받는다. 94년 손재주. 자금지출이 있다. 부실수가 있으니 외출시 금전관리 철저.
	47년 무슨 일든 하면 건강에 도움되고 금전이익이 따른다. 59년 건강증이나 부실할 일이 생기니 물건을 잘 챙길 것. 71년 분주하나 결과가 미약하다. 본인의 직관력을 믿어라. 83년 자기 능력 배양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도 넓히면 좋다. 95년 길이 막힌듯 하다. 답답해도 인내하면 오후에 일이 해소된다.